발간등록번호 11-1290472-000228-01

2023 시민강좌

항일투쟁과 동북아시아

CITIZEN LECTUR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2023 시민강좌

항일투쟁과
동북아시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2023 시민강좌

항일투쟁과 동북아시아

PREFACE

발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6 25전쟁 중인 1950년 국방부 정훈국의 '전사편찬회'로 발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일의 군사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군사사 연구성과물 발간 및 보급, 시민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군사사 연구 저변확대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연구소에서 이번에 기획한 시민강좌는 기존의 전문 학술세미나인 군사사 연구포럼을 시민강좌라는 방식으로 전환한 시도였습니다. 이는 군사 연구편찬과 학술포럼을 기반한 군사사 연구성과를 군장병 및 시민들과 공유하며, 국방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제선정에서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대중적 주제선정을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일투쟁과 동북아시아'라는 대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 3분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시민강좌는 8월 17일과 11월 15일, 저명한 역사학자들을 모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 '장개석과 한국독립운동', '잊혀진 연해주 항일운동의 기록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과 함께 사회자가 이끄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시민강좌에서의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 강연집을 만듦으로서 시민강좌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울러 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전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사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시민강좌를 통해 군장병,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오 성 대**

2023 시민강좌

항일투쟁과 동북아시아

CONTENTS

목 차

강연 0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야기 · 01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강연 02

장개석과 한국 독립운동 · 27

배경한 신라대학교

강연 03

잊혀진 연해주 항일운동의 기록들 · 69

박 환 고려학술문화재단

CITIZEN LECTURE

강연 0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야기

: 그 역사와 가치

김희곤

약력

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장

전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역임

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

저서

『임시정부 시기의 대한민국 연구』(지식산업사, 2015)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지식산업사, 2004)

『경북유림과 독립운동』(경인, 2015)

강연 0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야기 : 그 역사와 가치

김희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야기, 그 역사와 가치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쯤 있는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대개 1905년부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1895년 명성황후 시해 때 또는 을미의병부터 봐서 1895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더 소급해 가면 1894년 청일혁명이[1]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갑오변란이라고 해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해보다도 한 해 더 앞서서 경복궁을 점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따지면 51년간 우리들의 독립운동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50년으로 잡고 3·1운동 이전에 25년, 3·1운동 이후에 25년, 50년의 독립운동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0년. 그중에 정확하게 중간에 3·1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간으로 봐서 딱 중간이라는 의미보다도 실제로 딱 25년씩이긴 하지만 성격도 그 앞의 독립운동과 그 뒤의 독립운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1) 청일혁명은 1894~1895년 청일전쟁을 이르는 것으로 일본과 청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이다.

그 앞쪽에는 25년 동안 일어난 독립운동 중에서 제일 굵직한 틀을 보면 의병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병 전쟁이 제일 앞서 나오고 의병보다 10년쯤 뒤에 의병 갖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고 하여 서양 열강들의 제도, 과학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신지식인을 만들고 민족 자본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물결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계몽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병들이 추구했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국가는 성리학적인 질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군주국까지. 하지만 계몽운동을 추구하는 신지식인들은 서양의 물질문명, 과학 문명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정치 문명, 공화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당장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보수와 진보는 손을 안 잡겠지요. 보수와 진보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이념과 방법의 차이 때문에 등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라 망한 뒤에 5년이나 지나서 처음으로 이 둘 사이에 반성하면서 통합이 시도됩니다. 그것이 대한광복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2] 나라가 망한 뒤에 만주로 망명해서 활동하면서.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려 우리 대표가 파견되고, 그 대표가 활약할 수 있도록 또 민족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독립을 선언한 바탕 위에서 독립국을 선언했으니까 독립국을 만들어야 하겠다 하고 나타난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 후반기죠.

그런데 바로 이 3·1운동 때 국내에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반부 독립운동은 또다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또

2) 대한광복회는 1915년 7월 대구에서 한말 의병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양성해 무력이 준비되면 일제와 전쟁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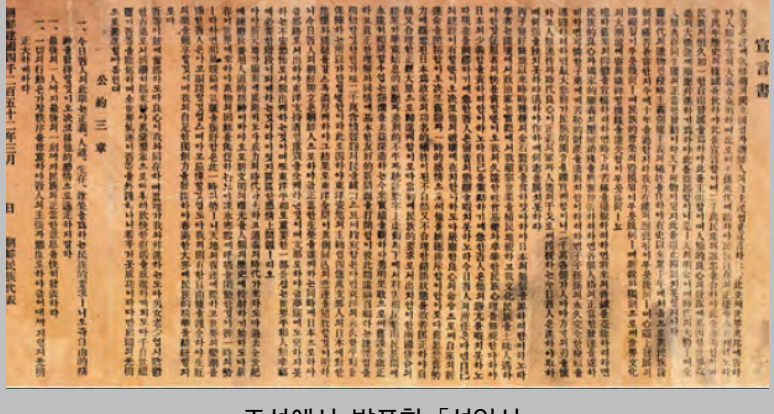
다른 보수와 진보가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시도합니다. 그러한 통합들이 여러 차례 나타나는 것 중에 신간회는 가장 대표적인 진보로 확장이 됐죠. 뿐만 아니라 한 해 앞서서 중국에서 있었던 민족유일당 운동이든 더 앞서서 국민대표 회의든 더 앞서서 임시정부가 좌우 합작으로 출발한다거나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3)]

어쨌든 오늘 주제는 이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독립운동사 50년 역사에서 딱 후반부입니다. 그것도 3·1운동에서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언했고, 독립국임을 선언했으면 국가의 이름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전에 벌써 3월 1일, 2월 8일 도쿄 유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3월 1일 국내에서 크게 일어났다고 해서 3·1운동이라고 하지만 만주에서도 대한독립선언서가 나왔고, 한국에 있는 모든 곳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3) 민족유일당운동은 1920년대 후반 만주와 중국 지역에 분립되어 있던 독립운동 단체들이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전개한 운동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회의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부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게 되자 각지의 대표들이 모여 협의회를 개최했다.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는 일본, 만주, 조선에서 각각 작성 발표되었다. 조선에서 발표한 「선언서」는 1919년 3·1운동 당시 작성된 것으로 손병희를 비롯한 33인의 민족 대표가 공동으로 서명한 것이다. 육당 최남선이 작성하고 만해 한용운이 낭독했다.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화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宣言書

조선에서 발표한 「선언서」

독립을 선언했고, 독립 국가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어떻게 이름을 짓고, 어떻게 법을 만들 것인가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한 논의 속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을 처음 제정하게 되는데 바로 선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포문을 보면 우리 국내 300여 개 주, 그러니까 300여 개 군에서 이미 광복하고 독립을 선언했으니 그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임시의정원의 뜻으로 임시헌장 헌법을 제정하노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는 오늘날 헌법 제1조의 출발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은 국호입니다. 국가 이름.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은 연호입니다. 대한민국 원년. 그러니까 중화민국도 국호이자 또 연호이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국호이자 연호로 사용합니다.[4]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마지막 연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융희(隆熙)입니다. 그러면 1910년 8월에 나라가 딱 망했으니 국내에서는 당연히 일본 연호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밖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나 우리 동포들은 무슨 연호를 썼을까요? 바로 단기(檀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독립선언서가 만주에서 나온 것이든 국내 것이든 다 단기를 씁니다. 그러다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되면서 나라 밖의 독립운동가들도 이 연호를 쭉 사용합니다.

4) 연호(年號)란 중국에서 비롯되어 한자를 사용하는 아시아의 군주 국가에서 쓰던 해의 차례를 나타낸 것이다. 대한제국 시기 고종은 광무(光武, 1897~1907), 순종은 융희(1907~1910)를 사용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大韓), 현재 한국은 서기를 사용하고 있다. 단기를 사용한 시기도 있었는데, 단기는 단군 탄생 시기부터 계산된 연호법으로 서기 2023년이면, 2333년을 더하여 단기 4353년이 된다.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의회의 결의를 얻어서 임시정부가 통치하는데 우리 역사에 최초로 법에 남녀평등을 못 박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빠른 것이죠. 실제로 임시의정원이라는 의회에 여성 의원이 김마리아 여사로부터 출발해서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국토를 회복하면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했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가 여기 있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호는 대한제국에서 황제가 주권을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민(民)'이 주권을 가지는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군주사회에서 민주사회를 지향한 것이죠. 서양에서는 자유민들이 시민혁명으로 참정권을 달라고 했죠. 그것을 시민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 경로

자, 임시정부가 27년 동안 중국에서 존재합니다. 27년 동안 존재하는 것 중에서 상하이(상해, 上海)에서 딱 절반을 보냅니다. 상하이에서 절반을 보내고 8년간 이동을 하고, 충칭(중경 重慶)에서 5년을 보냅니다. 상하이에서 13년 절반을 보내고 그다음에 윤봉길 의거로 떠난 뒤로는 난징(남경 南京)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탈출해서 쭉 돌아서 광저우(광주 廣州)까지 왔다가 장개석은 난징에서 충칭으로 갔으니까, 우리도 바로 충칭으로 갈 법하지만 어쨌든 바닷가로 가야 국내 소식을 알 수 있고 동포들과 연결할 수 있겠다 해서 포산(불산 佛山)까지 갔습니다. 일본이 여기에 상륙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을 해서 충칭까지 올라가서 충칭에서 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27년 동안 펼친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임시정부는 정부로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국내행정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지사나 군수나 위원장을 직접 임명해서 행정명령을 전달하고 세금을 거두고 독립전쟁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러한 행정 체계를 연통제라고 해서 연통문을 운영하게 되고 그것을 잇는 신경망인 교통국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게 됩니다.[5]

하지만 일본이 이 연결망을 1920년 후반부터 차곡차곡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고사 작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임시정부는 그러한 국내 행정망을 장악해서 원격통치를 하려고 했지만 2년쯤 넘어가게 되면 거의 단

5) 연통제는 1919년 7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령 제1호로 공포된 '임시연통제'를 이른다. 중앙에 연통부를 두고, 각 도에 감독부, 각 부와 군에 총감부, 각 면에 사감부를 설치하여 인원을 배치했다. 연통 각부의 주요업무는 임시정부의 법령과 공문 전달, 독립시위운동 진행사항 파악, 독립전쟁에 대비한 군인과 군수품 징발에 대한 사항, 군자금 송부, 기타 상부의 명령 전달 등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으로 1921년 들어 연통제 조직은 사실상 붕괴되고 임시정부의 국내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절됩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보면 1921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확 꺾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요즘의 사관학교, 그러니까 무관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두 번 무관학교를 운영하지만 사실 사관학교라는 게 인력 자원과 자금이 계속 공급되지 않는 한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통부나 교통국과 같은 시스템이 붕괴되면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만주에 있는 북로군정서, 서로 군정서도 원래 군 정부로 출발하는 거거든요.[6] 그렇게 임시정부 산하 조직으로 끌어넣으면서 군정서가 되죠.

그러나 만주에서 독립군이 전쟁을 펼치다가 북으로 밀려가고 하는 고난 속에서 독립전쟁을 펼치기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의열투쟁이 등장하죠. 의열투쟁이라는 것은,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덜 하지만 과거에 보면 김구 테러리스트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참 많이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라는 표현 속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테러라고 하면 우리는 911테러를 늘 생각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테러하고 우리의 의열 투쟁은 참 많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러는 아무나 죽으라고 하는 공격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의열 투쟁은 단 한 번도 민간인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

6) 북로군정서는 1919년 북간도에서 서일 등 대종교인들을 중심으로 3·1운동 이후 무장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군정서를 조직하여 활동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대한군정서로 인준받았다.
서로군정서는 1910년 이상룡, 이사영, 김창환 등이 자치기관으로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학교를 설립한 것에서 출발하여 3·1운동 이후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모여 한족회를 조직하고 산하단체로 남만주 독립운동의 총본영인 군정부를 구성하였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서간도 군사기관인 서로군정서로 개편되었다.

럼 공격 대상이 정해져 있느냐. 그건 단재 신채호의 선언에서 조선혁명선언에서 나와 있듯이 딱 부러진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략 책임자 또는 통치 기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 그게 천왕이든 상하이 주둔군 사령관이든 조선 총독이든 딱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의열 투쟁은 도덕적으로나 어떤 명분에 있어서나 전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외교 활동,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파리 강화회의를 겨냥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동,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활동이 외교 활동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후반부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다고 했는데, 이 보수와 진보가 쫙 나누어 지지만 끊임없이 통합운동을 합니다. 그 어려운 타국에서 펼치는 독립운동 속에 통합을 계속 추구했고 결국은 충칭에서 통합정부, 통합의회를 또는 통합군대를 달성해서 귀국하게 됩니다.

일제의 침략을 맞받아친 한인 애국단의 반(反)침략전을 정리해봤습니다. 육군 군벌이 만주를 쓸어요. 흔히 '만주사변'이라고 하듯이.[7] 그러면 해군은 또 어떻게 하냐면, 상하이에서 또 한판을 벌입니다. 그렇게 그 상하이를 침공한 후, 이겼다고 승전, 전승 기념식을 펼치는 날이 바로 일본 천황의 생일날이에요. 그날 윤봉길 의거가 일어난 것이고, 거기에 앞서서 이봉창 의거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우리들의 의열 투쟁으로 윤봉길 의사의 일본군 사령관 또는 주중 공사 처단 공격이 있었

7) 만주사변은 1931년 9월 18일 류탸오후(柳條湖)사건을 조작하여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한 전쟁으로, 만주지역을 점령한 일본군은 1932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부의 溥儀)를 내세워 만주국을 세웠다.

고 이덕주, 유진만의 조선 총독 저격 시도도 있었고요.[8] 그다음에 최흥식, 유상근의 관동군 사령관 처단 시도도 있었습니다.[9] 이런 경우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 뿐이지요.

그래서 "일제의 침략을 맞받아친 것이다", "침략전을 중심으로 공격한 것이다"라고 해서 '반침략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민간인들을 무고하게 공격한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 독립운동사 의열투쟁의 아주 멋진 모습입니다.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의열 투쟁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정신을. 그래서 우리들의 의열 투쟁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거라든지. 그것이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윤봉길 의거 이전까지 중국 정부가 한 번도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우리들의 독립운동을 도와준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장개석 정부도 우리들의 독립운동을 돕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일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국 육군군관학교에서 한국 청년들을 받아주기 시작한 것이죠.

8) 이덕주(1911~1935)는 황해도 신천 출생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고, 유진만(1912~1966)은 충남 연기 출생으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이덕주와 유진만은 상해로 망명하여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에 가입하여 활동했다. 1932년 3월 조선총독을 비롯한 일제 고관을 주살하기 위해 국내로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4월 7일 일경에 붙잡혔다. 이덕주는 옥고를 치르던 중 1935년 순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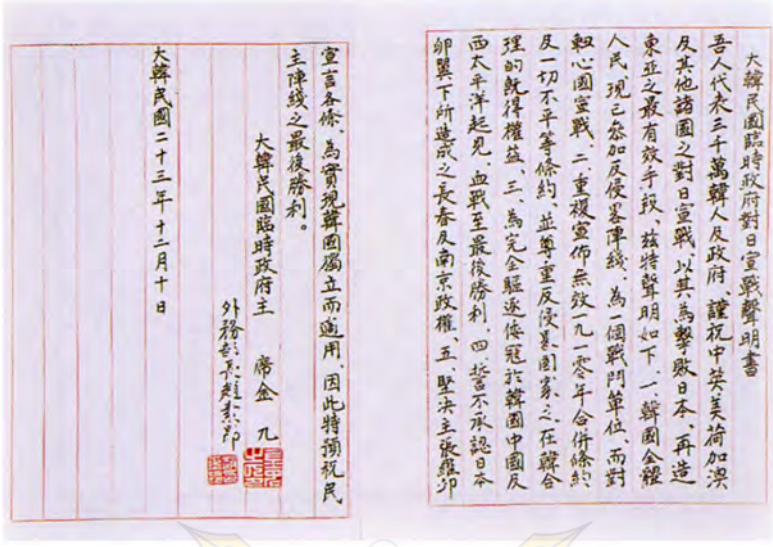
9) 최흥식(생몰연대 미상)은 서울 출생으로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고, 유상근(미상~1945)은 강원도 통천 출생으로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1932년 한인애국단원으로 일제 고관과 관동군사령관 등을 사살하기 위해 대련으로 갔다가 체포되었다. 최흥식은 10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고, 유상근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 1945년 8월 14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畢業證書
茲有中央陸軍軍官學校
軍官訓練班第三期學員
潘誠武修業期滿成績合
格特給此證
中華民國二十四年四月 日
印花

중국육군군관학교 졸업장

이것이 조소앙 선생의 아들 조인재 선생의 육군군관학교 졸업장입니다.[10] 여기에 훈련 총감인 탕성즈(당생지 唐生智) 이름도 있고 교장인 장개석의 본명인 장중정(蔣中正) 이름도 있고 교무위원도 있습니다. 1935년 졸업장입니다.

10) 조소앙(1887~1958)은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 겸 외무부장을 지냈다. 1945년 해방 후 귀국하여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大韓民國臨時政府對日宣戰聲明書
吾人代表三千萬韓人及政府，謹祝中英美荷加澳及其他諸國之對日宣戰，以其為擊敗日本，再造東亞之最有效手段，茲特聲明如下：一、韓國全體人民，現已參加反侵略陣線，為一個戰鬥單位，而對和心國宣戰；二、重履宣佈無效一九一零年合併條約及一切不平等條約，並尊重反侵略國家之在韓合理的既得權益；三、為完全驅逐倭寇於韓國中國及西太平洋起見，血戰至最後勝利；四、誓不承認日本卵翼下所造成之長春及南京政權；五、堅決主張羅列
宣言各條，為實現韓國獨立而適用，因此特頒祝民，主陣線之最後勝利。
大韓民國臨時政府主　席金　九
外務部長趙素昂
大韓民國二十三年十二月十日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1941.12.10.)

이런 바탕 위에서 충칭으로 옮겨 가서 한국광복군을 만들게 되고, 이듬해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하게 되면서,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제34회 의정원 의원 일동(1942.10.25.)

이 사진은 요즘의 의회, 즉 국회의 전신인 의정원으로, 제34회 의정원 일동입니다. 의정원 중에서도 좌우가 통합하여 합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김구 주석이 앉아있고 또 제일 오른쪽에는 좌파의 대표자인 김원봉이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통합을 해서 좌우 합작으로 정부가 구성되었고, 바로 그 조금 앞에 이들이 이끄는 군대,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으로 통합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장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194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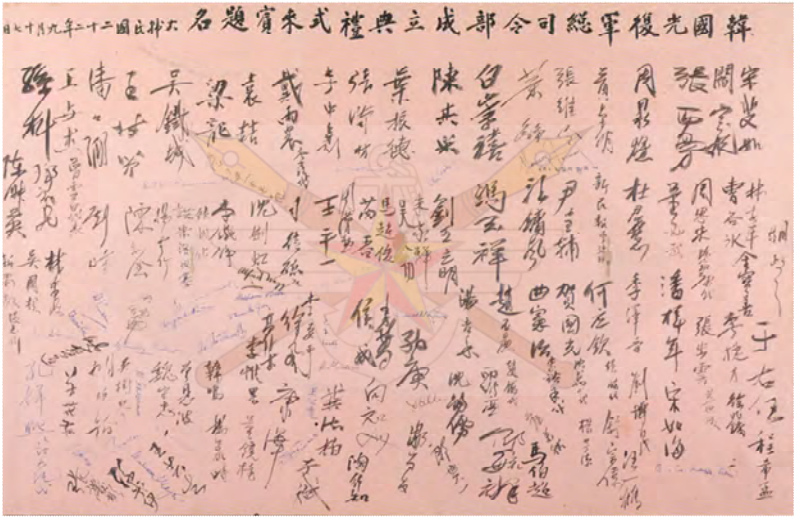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는 1940년 대한민국 22년에 쟈링하우스에서 만들어졌는데 쟈링하우스는 호텔입니다. 한자로 가릉빈관(嘉陵賓館)이라고 하는 이 호텔에서 일본군 공습이 있기 전에 새벽에 광복군 창설식을 했습니다. 이날 총비용은 장개석의 부인이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구 주석이 보이고, 이청천 사령관이 보입니다. 이청천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장교가 되었지만 3·1운동을 보고 만주로 탈출해서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갑니다. 만주에서 독립전쟁을 펼치다가 윤봉길 의거 이후 난징으로 이동해서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고 충칭에 가서 한국광복군을 만들 때 총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이 인물들 광복군 뒤에는 여성 대원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키가 작은 이분이 지복영이입니다. 지청천 장군의 본이름이 지대형입니다. 지대형이었는데 탈출한 뒤에는 한국 호적에 들어있는 이름을 쓰지 않으면서 이청천으로 바꿉니다마는 본명이 지대형이죠. 그래서 따님은

성을 그대로 해서 지복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상당히 기억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전에 충칭에서 지복영 여사님하고 여성 광복군 두 분하고 남성 독립운동가 광복군 여섯 분을 한 2주일 동안 쭉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지복영 여사는 내가 여기서 얼마 떨어진 극장의 영화를 무엇을 봤고, 그날 방송국에 가서 방송은 뭘 하고 왔는지. 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시는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 내빈 방명록(1940.9.17.)

이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하고 연회에 참석했던 내빈들의 서명파일입니다. 내빈이 죽 서명을 했는데, 몇 분 소개를 해 뒀습니다. 쑨커(孫科) 입법원장, 즉 국회의장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제일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이겠죠. 중앙당 부장. 다음에 바이충시(백숭희 白崇禧)라고 군사위원회에 계신 분. 그 다음에 류치(劉峙)라고 하는 분, 충칭의 위수사령관. 등등 아주 많은

중국의 요인들이 축하해줍니다. 그런데 눈에 또 띄는 것이 저우언라이(周恩來)하고 동비우(董必武)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원이지요. 이 당시 중국도 2차 국공합작을 하던 때라 충칭에 중국 공산당 판사처(辦事處)가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광복군은 크게 봐서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들어오면 후기가 되고 그 전은 전기가 되는 셈입니다. 집무처라고 해서 병사를 모병하는 집무처를 곳곳에 전방위로 파견합니다. 했다가 뒤에 가게 되면 총사령부가 있고 충칭에 제1지대, 서안에 제2지대, 안예성에 제3지대. 해서 3개 사단을 목표로 군대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면전구에 파견된 광복군(1943-1945)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이 우리들의 군사력 도움을 청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인면전구(印緬戰區)공작대 이야긴데요.[11] 인면할 때 인(印)은 인도고, 면(緬)은 미얀마입니다. 이전에는 버마가 되겠죠. 영국군이 전

11) 인면전구공작대는 한국광복군의 소속부대로 제2차 세계대전 중 1943~1945년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국인 영국과 공동작전으로 대일항전을 펼쳤던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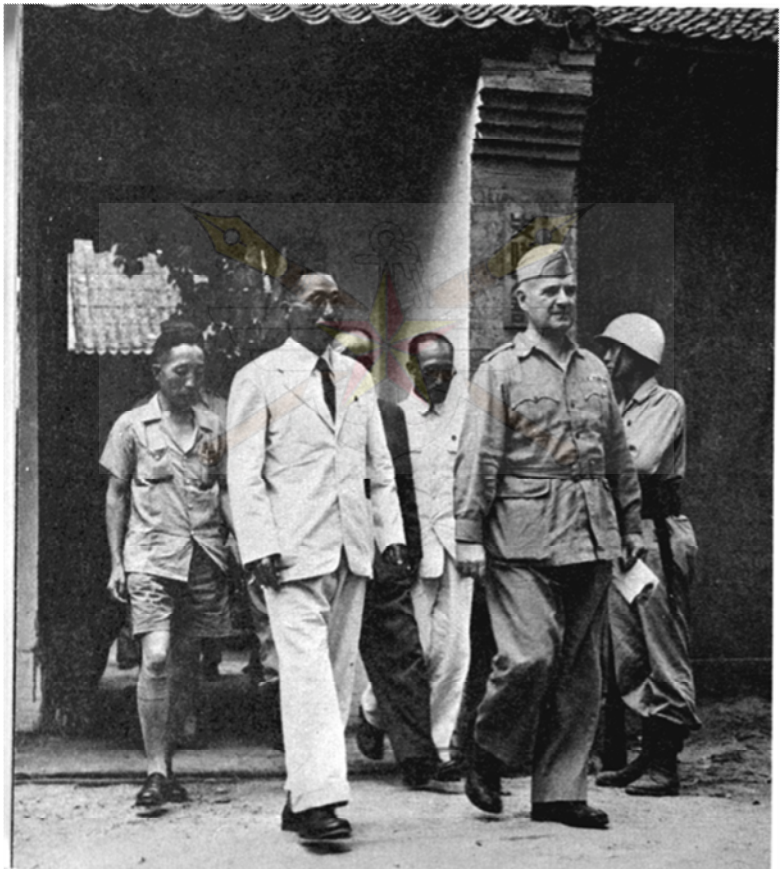
투를 벌이고 있는데 밀림 속에서 2개 사단이 포위돼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어와 일본어가 능통한 정보 요원들을 필요로 하게 되고 영국에서 먼저 민족혁명당에 도움을 구합니다. 민족혁명당에 도움을 구했다가 한지성이라는 분이 선택되는데, 그 일에 한국광복군에서 9명을 파견하게 됩니다. 상당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영국군이 탈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합니다. 이 인면전구공작대의 활동 내용을 담은 것이 1991년도 1992년도에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여명의 눈동자

1991년 10월~1922년 2월 방영된 드라마였다. 총 10권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했다. 필리핀에서 최대치가 소속된 일본군 제15사단의 버마 행군 장면, 하림이 근무하는 군 야전병원의 모습도 나온다. 1991년 한국과 국교를 맺지 않았던 중국에서 하얼빈, 상하이, 난징 등에서 촬영했다. 2020년 뮤지컬로 새롭게 공연되기도 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여명의 눈동자' 뮤지컬 포스터

그런데 우리 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작년 올해에 걸쳐서 인면전구공작대에 관한 영국 측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면전구공작대가 영국을 도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광복군의 문서, 그리고 일본의 정보 문건도 일부 있고, 또 생전 참가하셨던 분들의 증언으로도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영국 문서 속에서 이분들의 활동 내용이 작년에 발견이 돼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출판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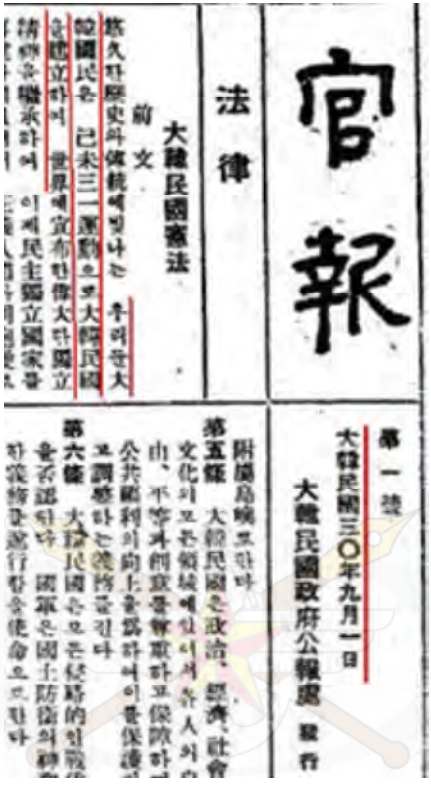
독수리 작전에 대한 협의를 마친 김구 주석과 도너번 OSS 사령관

이것은 CIA의 전신인 OSS 전략첩보국의 사령관인 도너번(William L. Donovan) 소장과 김구 주석이 시안(西安)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국내에 정식 군을 파견하기 위하여 합의하고 서명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환영식

그런데 임시정부는 개인 자격으로 돌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 자격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국민은 이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이라고 해서 전국의 곳곳에 개선문을 만들고 독립전쟁에서 돌아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제헌 헌법을 보면 이승만 국회의장은 초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 국회의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3·1혁명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했는데 그걸 꼭 계승한다는 것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는 내용을 속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조문에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정신을 계승해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미년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1948년도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재건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단기를 씁니다. 해방되면서 일본 연호를 다 지우고 모든 호적 등본이든 뭐든 간에 정부 문건에 연호를 단기로 다 고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서 건국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관보 1호를 보면 헌법이 있고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官報
第一號
大韓民國三〇年九月一日
大韓民國政府公報處
法律
大韓民國憲法
前文
이승만 정부 관보 1호(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여기서 두 가지 큰 충돌이 생깁니다.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단기를 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정부는 대한민국 연호를 씁니다. 대한민국 30년. 그래서 국회에서 대논쟁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30년 역사를 다 이해한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모든 문건을 단기로 고치느라고 면사무소에 있는 문건까지 다 일본 연호를 다 고쳐놨는데, 또 대한민국으로 고치는 것은 어렵다, 대한민국 30년 다 인정한다, 그런데 단기로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9월 25일 국회에서 “우리의 연호는 단기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너무 안타깝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담화를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서기는 5·16 군사쿠데타가 나오고 그해 12월 결정을 해서 1962년 1월 1일부터 쓰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호를 그대로 갖고 오고, 연호도 그대로 갖고 오고,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그대로 갖고 오고. 대통령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번역한 말입니다. 쓰기는 우리가 쓰지만. 국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도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때 등장했다면 임시정부는 정식 정부로, 임시의정원은 그대로 국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 국가를 세운 세계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919년에 군주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난징에 있었든 상하이에 있었든 어디에 있었든 이미 3·1운동 때 민주공화제를 만들어냈고 그걸 이어받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것처럼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단 한 번도 건국이라는 말을 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결론은 이겁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어떻게 발전해왔느냐. 그 연결고리에 조선총독부가 있다. 조선총독부가 있다는 게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에서 황제 국가에서 시민사회 근대 국가로 독립운동을 통해서 만들어 낸 역사를 또 찾아보자. 과연 쉽게 찾아낼 수 있겠는가?

황기환(1886~1932)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안창호가 1905년 조직한 공립협회에서 활동했고,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참전하기도 했다. 1919년 6월 파리, 8월 미국, 이후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독립 정당성을 알리는 일을 맡았다. 1919년 러시아의 한국인 노동자 500여 명을 도와 프랑스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프랑스로 유학 온 학생들에게 학교와 일자리를 주선해주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활동을 계속하던 중 1923년 4월 17일 뉴욕에서 서거하였다.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황기환 묘비

이제 마지막입니다. 얼마 전에 유진초이다 어쩌다 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황기환 선생이 뉴욕에서 돌아가셔서 묘비가 있는데 얼마 전에 유해를 모시고 왔지요. 그런데 유해를 모시고 오는 이유가 뭐냐. 그분의 뜻을 그분의 정신을 모셔온 것 아니겠어요. 근데 비를 보면 '대한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기환 지묘 다음에 '민국 5년 4월 13일 영면'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일반인들이 민국 연호를 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광복회에서 대한민국 105년입니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있죠. 이런 겁니다. 황기환 선생의 묘비에 봐도 이렇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02

장개석과 한국 독립운동

배경한

약력

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현 중국절강대학교 장개석연구소 객좌교수

전 신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저서

『중국과 아시아』(한울아카데미, 2016)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실』(한울아카데미, 2013)

『중외학자論蔣介石』(浙江大學出版社, 2013)

강연 02

장개석과 한국 독립운동

배경한

저는 오늘 1919년 이후 중국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장개석이 어떤 인물인가, 두 번째는 장개석이 독립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1. 장개석과 현대중국

장개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개석 고향집인데요. 저장성(浙江省) 시커우(溪口)라고 하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승지가 됐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장개석을 낮게 평가할 뿐 아니라 비판적이라서 거의 알려지지 않거나 또 중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개혁 개방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장개석에 대한 평가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저장성 시커우의 장개석 고향집

장개석과 쑨원

장개석(蔣介石, 1887~1975) 중국 국민당 총재, 타이완 중화민국 총통을 지냈다. 장개석은 스승인 쑨원(손문 孫文, 1866~1925)의 사상을 계승하고, 1920년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인물이다.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과 한중연대를 이끈 인물로 195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쑨원은 중국의 '신해혁명'을 이끌고 청나라에서 '중화민국'을 세운 인물로,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을 지냈다.

보시다시피 아주 집이 거창합니다. 아버지가 소금 상인이었고요. 돈이 제법 많은 이 지역의 큰 부호였습니다. 장개석은 부인도 여러 명 되고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장개석이고요. 군인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쑨원입니다.[12] 쑨원의 군사 조력자 가운데 제일 중심인물, 그게 장개석입니다.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유학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육군예비학교를 다녔는데 일본육사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부대 간부 후보생으로 편성이 돼서 일본 포병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일본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주 뭐랄까 찐 군인입니다. 군인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성실, 복종 이런 것을 아주 강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1923년 무렵부터 1975년에 죽었는데 1973년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 일기가 대만에 있었는데, 정세 변동이 좀 심하니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증이 됐어요. 지금 거기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일기를 쓰고, 한 주일 지나고 나면 일요일 저녁에 한 주의 반성문을 쓰고, 한 달 지나면 한 달 말일 날 한 달의 반성문을 써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그 아들 장징궈(蔣經國)라고 있는데요. 장징궈에게도 일기를 거의 강요하다시피했어요. 장징궈도 어마한 분량의 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12) 쑨원(손문 孫文, 1866~1925)은 중국의 '신해혁명'을 이끌고 청나라에서 '중화민국'을 세운 인물로,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을 지냈다.

육군군관학교, 황푸(黃埔)군교

이 사진이 육군군관학교라고 돼 있는데 황푸군관학교입니다.[13] 황푸는 광저우에 있는 조그만 강 가운데 있는 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황푸군관학교의 교장이 되면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황푸군관학교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국공합작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 그리고 그 배후에는 소련의 지원, 이런 속에서 만들어진 군관학교였고요. 이 군관학교에서 급속하게 많은 수의 군관을 양성하고 그 군관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혁명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1924년에 군관학교를 만드는데요. 1926년이 되면 한 10만 명의 국민혁명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시에 중국을 통일, 그걸 북벌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13) 황푸군관학교는 1924년 중국 국민당 광저우 정부가 세웠던 사관학교로, 1930년 중앙군관학교로 이름을 개칭하기까지 7기의 군관을 양성했다.

난징국민정부 성립(1927)

그래서 만들어진 게 1927년 난징을 수호하는 난징 국민정부라고 하는 통일 국민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1928년이죠. 장개석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건 1927년입니다. 그 뒤 1931년 일본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중국에서는 9·18사변 이렇게 부릅니다만. 일본과 중국은 1931년 9월 18일 중국에서 동북이라고 부르는 만주 일대를 장악하려는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때부터 일본과 전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1937년에는 7·7사변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켜 일본이 중국을 공격합니다.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중일전쟁을 '15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부터 치면 '15년 전쟁'이고요, 중국 사람들은 또 한쪽에서는 "'8년 전쟁'이다, 1937년 77사변부터 1945년까지 8년 전쟁이다".[14]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4) 7·7사변은 1937년 7월 7일 시작된 중일전쟁을 이른다.

일본이 중국에 항복 문서를 전달하는 사진

1945년 7월 26일 미국, 영국, 중국은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에 대한 처리방침을 명시하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 일본이 이를 무시하자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廣島), 8월 9일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소련은 이날 대일참전하여 만주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일본 군부는 항복을 결의하고 10일 포츠담선언 수락을 결정했다. 8월 15일 일왕은 이것을 국민에게 방송하고 8월 30일 미군은 일본을 점령했다. 9월 2일 도쿄만(東京灣)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가 조인되면서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중국에 대해서 일본은 9월 9일 난징에서 항복 문서를 전달했다.

사진은 일본군 지나주둔군의 사령관이 중국군에게 항복 문서를 전달하는 상황입니다.[15] 이 사진 속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15년 전쟁 혹은 8년 전쟁을 경과하면서 장개석은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항전의 영웅이 됩니다. 그 어려운 전쟁을 이겨낸다고 하는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중국에서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6년부터 1949년까지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라는 게 중국 내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 결과 국민당 군대가 대만으로 밀려나고 공산당 군대가 대륙을 차지하는 내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내전의 결과로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나죠.

장개석은 대만에서 1975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대만에서는 두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의 대만으로 경제 성장시킵니다만, 개발 독재라는 말을 씁니다.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아주 중앙집권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이다"라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그런 인물로, 그래서 나중에 국민당이 대만에서 정권을 잃는 일도 생기는데, 그게 2000년이죠. 이처럼 대만에서는 장개석의 평가가 아주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만을 발전시키고 이런 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또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랬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장개석의 일생이랄까 이것을 현대 중국의 역사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한마디로 장개석은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군사정치 군인정치라는 것. 그래서 이분한테

15) 지나는 진나라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은 중국을 지나(支那)라고 부르며 차별적이고 경멸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일본은 중국에 파견한 일본군을 지나파견군이라고 명명했다.

군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성격도 군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반면 일본에 대한 저항 항일전쟁에서 결국은 살아남는 그런 공적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내전에서는 모택동의 공산당에게 패해서 대만으로 가는 그런 수모를 겪어요.

장개석과 한국 독립운동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과 한국 독립운동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무대가 커서 제가 장개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줄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개석을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2. 장개석과 한국 독립운동

장개석이 한국 독립을 어떻게 봤느냐. 한국 독립운동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게 이제 둘째 파트인데요. 장개석과 독립운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국은 혹은 장개석은 우리에게 우군인가? 우리를 도왔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가 군관학교입니다. 군관학교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합니다만, 국공합작의 산물이었고, 그 출발점이 이른바 소련이 세계 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에 대한 약속으로 공산주의 혁명 수출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였습니다. 황푸군관학교의 군사 보급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다 소련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소련의 목표는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식민지 약속에 대한 광범위한 공산주의 혁명의 수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중국에 있던 한국 임시정부라든가, 또 중국에 있던 베트남 독립운동가들,

또 인도네시아 독립운동가들, 인도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푸군관학교인데,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한국인 특별반, 베트남 특별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좌익 세력의 대표자라고 할 만한 그 김원봉이 바로 황푸군관학교 4기생입니다. 박은식이라고 당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가이자 독립운동가가 계시죠. 2대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은식의 아들인, 양자이기는 합니다만, 아들인 박시창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황푸군관학교 5기생입니다. 아주 많은 분이 황푸군관학교 출신이었고요. 그분들 상당수가 국민혁명군, 중국의 군대에 편성돼서 중국의 통일 전쟁에 참전했어요. 참전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보훈 제도가 외국에서 독립에 공헌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보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외국 군대에 편성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그분들의 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 나는 중국 군대 국민혁명군에 포함돼서 중국의 통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 이것이 성공한다면 중국 혁명이 성공한다면 그 중국의 힘을 빌려서 내가 한국의 독립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받아오겠다는 게 그분들의 목표였어요. 그렇다면 중국 군대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이죠. 근데 그런 것을 광복군에 들어간 분들은 독립운동이고 국민혁명군에 들어가면 그건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황푸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한인이 가담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조선의용대가 됐든 한국광복군이 됐든 광복 운동의 중요한 군사적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그 출발점이 황푸군관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황푸군관학교의 교장이 장개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장개석이랑 가까웠고요.

김원봉 결혼사진

박시창 결혼사진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김원봉이고. 결혼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박시창인데요. 참 두 분 다 뭐랄까 멋있습니다. 그 부인들도.

1946년 장개석과 김홍일 기념사진

이분은 장개석과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까웠던 분 중의 하나인데 황푸 군관학교 출신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광복군이랄까 이 독립운동에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긴 분이고,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도 국군을 만드는데 중요한 초석을 놓은 분이 김홍일이라는 분이죠.[16] 물론 이분은 김원봉하고도 가까워 좌익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귀국할 때는 남한으로 귀국을 하셨어요. 국민혁명군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승진했던 그런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장개석도 김홍일을 대단하게 높이 보고 독대를 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김홍일 장군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동북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 회고록이랄까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 국민혁명군의 소장이었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높이 올라간 한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16) 김홍일(1898~1980)은 평북 용천군 출생, 중국 육군강무학교를 졸업한 이후 1921년 독립군의용군단 대장, 1923년 조선의용군 부사령관 등을 거쳐 1926년 중국 국민혁명군에 가담하여 장개석의 북벌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1945년 6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장으로 활동했으며, 해방 후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맡아 한국군 초기 설립에 공을 세웠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윤봉길 의거

1932년 4월 한인애국단원이었던 윤봉길이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진 일을 이른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 독립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제의 침략을 받아오던 중국인들이 지지하며 한국 독립운동을 새롭게 인식시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하였다.

윤봉길 의거가 일어난 홍커우공원 당시 사진

김구와 윤봉길

다음으로 윤봉길 의거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홍커우공원에 있는 식장에서 단상으로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전에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윤봉길의 의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정말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아주 큰 족적입니다.

더군다나 1932년 4월이라는 시점이 당시 사정을 보면 그 전 해에 만보산(萬寶山) 사건이라고 하는 이른바 동북에서 한인들과 중국인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고 한국에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배화사건, 화교 배척 폭동이 일어납니다.[17] 그래서 여러 도시에서 화교들을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희생자가 공식적인 것만 106명입니다. 그리고 백 수십 명이 다치고 수만 명이 귀국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중국과 한국 사이에 민심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윤봉길 의거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의 인식을 되돌려 놓는 의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서 보면,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 정부의 한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됐습니다. 실제로 1932년 무렵부터 32년, 33년 김원봉과 김구에 대한 국민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장개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장개석 일기도 들여보고 했는데 흔히 하는 말대로 장개석이 사건을 보고 “100만 중국 대군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조선의 청년

17) 만보산사건은 1931년 7월 2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 만보산 지역에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이 충돌한 사건이다. 만주로 이주한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수로(水路) 문제가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지만, 일제에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만주 등지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사건의 배경이다.
배화사건, 화교배척폭동, 화교배척사건, 반중국인 폭동 등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만보산사건 이후 조선 내에서 일어났던 중국배척 운동을 이른다. 특히 평양지역의 화교와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장개석이 했다는 얘기가 당시 임시정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심지어 지금도 윤봉길 기념관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장개석 일기 그 앞뒤 날짜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윤봉길 의거 다음 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몇 줄 적습니다. 그 속에 뭐 칭찬했다. 이런 얘기는 없고 오히려 좀 걱정하는, 이런 일로 해서 당시 일본이 상하이를 침략하고 있었는데 상하이 침략에 대한 강화조약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강화조약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적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윤봉길 의거를 통해서 중국의 민심이 크게 달라졌다. 크게 돌아섰다. 이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하나는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좌익을 대표하는 김원봉 세력이고 또 하나는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김구 선생님을 대표로 하는 그런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군대라고는 하지만 숫자가 적고 이런 군대이기는 합니다.

장개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중의 하나가 바로 카이로 회담입니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처음 이야기하고 승인한 비록 "in due course"라고 하는 적절한 시기를 통해서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 이야기가 거론되고 카이로선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이로 회담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회담이다. 1차 회담(11월 22~26일)에서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중화민국 장개석 총통이 모여 일본과 전쟁에 서로 협력할 것을 협의하고 일본이 패전했을 때 일본의 영토처리에 대한 연합국의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2차 회담(12월 2~7일)에서는 스탈린 서기장, 루즈벨트 대통령, 처칠 수상이 회담을 가졌다.

카이로 회담 참석자 사진(1943년 11월)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é With Amendments by President Roosevelt

카이로선언 초판 필사

맨 왼쪽이 장개석이고요. 그다음 제일 오른쪽이 장개석의 부인인 쑹메이링(송미령 宋美齡)입니다.[18] 그리고 중간에 루스벨트와 처칠이 있습니다. 장개석은 영어를 전혀 못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군인이죠. 말 그대로 군복을 입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고 세 사람 루스벨트와 처칠과 쑹메이링.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쑹메이링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 출신이고 아주 명망이 있는 기업가의 딸이고 스탠다드한 영어, 영국식 영어를 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칠이나 루스벨트가 쑹메이링한테 반했다고 해요.

이것은 카이로선언의 초판 필사입니다. 처음 타이핑한 것의 수정본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죠. 이 부분에 한국 독립에 대해서 얼마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라고 하는 단서를 다는 항목인데 이 줄 그은 사람이 처칠입니다. 이걸 타이핑한 호킨스라고 유명한 루스벨트의 개인 비서입니다. 그 사람이 초안을 만들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 과정에서 처칠이 줄을 긋고 “in due course”라고 원래는 “in front of time”이라고 썼는데 표현이 영국식이지 않다, 고급스럽지 않다고 해서 “in due course”라고 적었는데 나중에 신탁통치의 중요한 논쟁점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 장개석이 관여하고 있고 실제로 이 앞뒤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장개석이 그날 루스벨트에게 한국 독립 문제를 거론했고 이것을 루스벨트가 받아들이는 형식이었어요. 다만 신탁통치라고 하는 그런 과도기를 거친다고 하는 것을 루스벨트가

18) 쑹메이링(1897~2003)은 광둥성(광동성 廣東省)에서 출생하여 미국 웨슬리대학을 졸업하고 1927년 장개석과 결혼했다. 대미 관계 조정에 큰 역할을 했던 인물로 장개석의 수행자로 활동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원한 공으로 1966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넣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장개석은 한국의 독립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를 방문한 장개석과 이승만

김해비행장에 도착한 장개석과 맞이하는 이승만

이것은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나기 직전이에요. 대만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에서 진해로 왔습니다. 1949년인데요. 이때 이승만 대통령과 진해 별장에서 회담합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진해에도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군사비행장이. 진해비행장에 장개석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리고 거기에서 회담했습니다. 이때의 회담은 아시아의 반공연맹 같은 것을 만들자. 필리핀 그다음에 대만, 남한이 참여하는. 그래서 다시 공산당원과 연합해서 싸우자고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것을 이승만과 장개석이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한국전쟁에 장개석이 참전합니다. 대만의 국민당 군대를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트루먼이 반대하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의 대만방문 환영식

박정희 대통령과 장개석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대만방문 사진입니다. 냉전 시대였고, 그래서 대만과 남한은 그야말로 혈맹이었습니다. 피로 맺은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대륙학계에서는 공산당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장개석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티엔스(양천석 楊天石)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평생 장개석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 분이고요.

대만 학계에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장개석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두 분 다 국민당 계열의 학자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위파(장옥법 張玉法), 뤼팡샹(려방상 呂芳上) 선생입니다. 이분들이 장개석을 얘기할 때 훨씬 더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한국 학회에는 장개석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요. 어쩌다 보니까 제 책을 두 개나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동아시아와 관련해서도 장개석 혹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가 주목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CITIZEN LECTURE

토크콘서트

사회자 김유석(전쟁기념관)

김희곤,

배경한,

패널

사회자 : 1919년 이후에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중국 지역에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이 중국 특히 장개석과 관계가 긴밀했다는 점을 두 분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질의응답, 다음으로 보충적인 설명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분의 소개를 먼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장님.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으로 계셨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고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관장을 지내셨습니다. 근현대 독립운동사를 연구하셨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연구와 활동을 하셨습니다.

배경한 교수님은 장개석 연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신라대학교에 계셨고요. 중국 저장(浙江)대학 장개석 연구소 객좌교수,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계십니다. 중국현대정치사, 사상사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오셨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과 중국의 관계를 연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면도 많고 또 의견 나누실 것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김희곤 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1919년 이후에 임시정부가 본격적으로 중국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일부 설명을 간단히 하셨지만 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강연자 김희곤 : 27년 중에 딱 반 시간을 상하이에서 보냈다고 했는데 윤봉길 의거가 나고 나면 프랑스 쪽에서 더 이상 임시정부를 돌봐주거나 방어벽을 쳐줄 수 있는 형편은 이미 아니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날 수밖에 없고 또 김구도 숨어있다가 탈출하게 되고요. 상

하이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 항저우가 있는데 임시정부는 항저우로 탈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난징으로. 물론 정부 자체는 난징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분들은 난징으로 가게 되는데 난징이 장개석 정부 국민정부의 수도니까 그쪽으로 행동을 했던 거죠.

중일전쟁이 나게 되면 30만 중국인들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일본이 난징을 함락하면서 1937년 12월에 대 도살이라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 탈출해서 자싱(嘉興)으로 갔다가 광저우로 이동하는데요. 전시에 수도 충칭까지 쭉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동식이라고도 하고 장정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충칭은 장개석 정부의 전시 수도니까 그곳으로 이동을 해가게 되죠. 충칭 같은 경우는, 험난한 곳 그리고 안개가 심해서 일본군의 공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전시시설로 옮겨가니까 임시정부도 보면 충칭으로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자 : 오랫동안 상하이에서 있다가 1932년도에 이동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윤봉길 의사의 의거 배후가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라는 것이 일본에 의해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작한 것이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난징이 수도의 역할을 했는데 우리 임시정부가 난징으로 안 갔단 말이죠. 난징으로 안 가고 그 옆의 다른 곳으로 가는데 왜 난징으로 안 갔죠?

강연자 김희곤 : 전장(진강 鎭江)이라는 데는 난징으로 들어가기 전의 작은 도시인데요. 여기로 말하면 인천 같은 곳 또 수원 쪽이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수도는 난징이지만 난징에 들어가기 전 전장이라고 하는 곳에 정부 청사를 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상하이를 침공해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윤봉길 의거로 큰 희생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임시정부가 중국의 수도인 난징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해군을

끌고 올라가서 난징 성을 폭격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청사를 난징 성안에 두지는 못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요인들은 난징 안에 살고 그래서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같은 경우는 회천교 주변에서 고물장사로 위장해서 살고 또 이동녕이나 나중에 이청천 이런 인물들이 오게 되면 전부 난징성 안에 머물게 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난징 성안에 임시정부 청사가 있다면 바로 해군을 끌고 올라가서 폭격합니다. 청사가 난징 성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도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회자 : 네. 장개석 정부의 반대 의견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배경한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강연 중에 보면 역행사(力行社)라는 말이 나왔어요. 역행사가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 이거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장개석이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 줬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또 장개석의 굉장히 중요한 조직 중의 하나가 남의사(藍衣社), 역행사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독립운동과 관계를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자 배경한 : 장개석 얘기를 하면서 군사 정치가이자, 군사 독재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개석의 독재적인 권력 체계를 떠받들어주는 몇 가지 중요한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1938년 이후에 등장합니다마는 군통(軍統)이라는 게 있어요. 군사위원회 중앙조사통계국이라고 하는 군통이라고 줄여서 말하고, 그다음에 국민당 안에 당원들에 대한 대상이지만 사실 정치 전반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정보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중앙조사통계국이라고 해서 중통(中統)라고 부릅니다.

중통위, 군통위 이 두 통에 의해서 장개석 정부가 유지됐다고 할 만큼

정보 통치가 아주 만연한 시대입니다. 성립 과정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남의사(藍衣社), 역행사(力行社)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1932년입니다. 김원봉이나 김구를 지원하는 것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난징에서 장개석 휘하의 일부 친위 군대 친위 장교로, 다 황푸군관학교 출신이죠. 황푸군관학교 출신의 친위 장교 그룹 가운데 정복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삼민주의역행사(三民主義力行社)라는 이름을 씁니다.

역행이라고 하는 말은 왕양명이 말하는 역행, 힘써서 행한다고 하는 건데 그 역행이라는 말 앞에 삼민주의라는 말을 붙여서 쑨원의 주장인 삼민주의를 힘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역행사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근데 그 역행사가 경우에 따라서 부흥사라고 하는 이름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남의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신들은 남의사라는 말을 꺼리는데, 말 그대로 남색 푸른색 옷을 입고 있다. 그런 의미로 블루셔츠 클럽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민간에서 민간인 복장으로 정보 수집을 수행하고 그것을 장개석에게 직보하는 단체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1938년이 되면 군부와 당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돼서 하나는 중통 하나는 군통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현재 과거 중통, 군통과 한국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운동 특히 한국광복군의 경우에 중국 측 자료들을 읽어보면 상당수 7~80% 이상이 중통, 군통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이에요. 중통, 군통에서 광복군을 지원한달까 혹은 이제 통제한달까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 논문의 주제인데요.

광복군이 사실은 전투 부대는 아니라고 저는 단정을 하고 실제로 의장도 거의 없었고 주로 했던 게 정보전 그리고 선전전입니다. 그래서 일본군과 맞닥뜨린 최전선에서 일본군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일본군 중

에도 특히 한국에서 징발당한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한인 일본군에 대한 선전전 그래서 빨리 탈출해라 뭐 이런 식의 광복군에 합세해라, 이런 일들을 광복군이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자체가 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또 중국 측에서 보면 또 하나는 외국 독립운동 세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의 정치 세력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군통, 중통에서 이런 것을 관장하는, 실제로 국민당 조직부에서 했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군사위원회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조직부 안에 중통이 있고 군사위원회 안에 군통이 있거든요. 다 정보 조직이었고 그 속에 관련된 한 파트가 광복군이었고 정보 전략 관련돼서 중국군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한두 번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써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다행히 대만 쪽의 자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개방되면서 그런 군통, 중통 이름이 붙은 자료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역행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사회자 : 제가 배 교수님이 그런 쪽에 연구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임시정부라는 것이 군대 조직이나 정부 조직이 크지가 않고 포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능력이 한정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것과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질문이라든가 또는 의견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패널1 : 김희곤 관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32년 이후에 임시정부가 일본군으로 인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국내에

있는 우리 독립 세력들과 국민과 관계의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강화하거나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자 김희곤 : 임시정부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륙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잖아요. 장개석 정부는 전쟁이 나면 바로 전시 수도를 향해서 가는 것으로 정해서 가지만 어디로 가야 계속해서 국내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미 상하이는 점령당하는 형국이고 내륙으로 들어가면서도 국내와 연결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광저우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바닷가로. 바닷가로 가야만 어쨌든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광저우에 도착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군이 상륙하고 공습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광저우를 탈출할 때는 거의 공습을 받아가면서 위기를 겪으시면서 탈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하고 연결을 도모한다는 그 자체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어쨌든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광저우로 탈출해서 잠시 숨을 돌리는 것이 류저우(柳州). 그곳에서 한 반년 정도를 보내면서 군사 조직을 처음 발동합니다. 광복진선청년공작대라는 걸 만들고 그것을 이동해서 충칭 입구에 있는 장강이라는 곳에 가서 숨을 돌리면서 군사 조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국내하고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꿈을 꾸지만, 그 피난길은 굉장히 힘겹고 힘겨운 길이어서 국내와 연결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사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몰두하던 시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김원봉 계열과 어떻게 하면 좌우 합작을 도모할 것인가, 여기에 몰입하던 시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2 : 저는 배경한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949년 진해에서 장개석이 찾아와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회담

을 하는데 왜 진해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949년도 아시아반공연맹에 대한 구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1953년 6월 아시아반공연맹 창립 회의가 열리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 자유총연맹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도에 미군들이 좀 반대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자 배경한 : 진해 회담을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 왜 진해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당시에 장개석의 주된 관심은 반공연맹을 만드는 데 있었지만, 또 하나는 보안이었어요. 당시에 수도 서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고, 한국 측하고 회의 개최지를 두고 미리 협상하는 내용을 보면 양측의 주된 관심이 어떻게 하면 빨리 쉽게 만나고, 보안이 덜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딘가로 좁혀졌습니다.

진해는 일본의 군용기를 위한 비교적 활주로가 짧은 공항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승만도 좋아하는 별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습니다. 실제 대만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는데 대만 측에서 미리 와서 활주로에 내려봅니다. 점검하고 위험한 것이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런 다음에 괜찮겠다고 해서 진해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승만으로 보면 불편하죠. 거기까지 내려왔다 가야 되고 그다음에 진해는 군항이어서 일본강점기부터 아주 보안이 철저하게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연구자들 가운데서 이승만과 장개석의 관계가 좀 껄끄러워서 그래서 이승만이 서울로 부르지 않고 약간 좀 홀대하는 입장에서 진해로 불렀다는 해석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어떤 입장인가 하면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1945년 11월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때 장개석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미국 달

러로 20만 달러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정치자금으로 삼도록 했는데, 이 돈을 미 군정이 결국 못 가져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방법을 생각하다가 중국 측에 맡기고 중국 측에서 미국에 있는 주미 중국대사관 측에 맡기면 미국하고 남한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나중에 찾아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이승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 김구 선생이 귀국하고 2년 뒤인가에 이승만이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굳이 난징을 들릅니다. 상하이에서 난징을 들러서, 난징을 들른 회의록 같은 것들이 중국 측에 다 남아있는데 주된 목표가 뭔가 하면 20만 달러예요. 그랬더니 장개석이 NO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장개석의 선택지는 김구 선생이었고 이승만은 뭐 두세 번째니까 김구한테 준 것을 김구의 허락 없이 내가 줄 수 없다. 근데 나중에 김구 선생님도 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못 받아냅니다. 1948년 1949년까지 진해 회담 열기까지 이 돈이 이승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이승만은 장개석에게 섭섭했고 그래서 진해로 불렀다, 서울이 아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로 보안 문제로 해서 당시에 어수선한, 특히 신탁통치를 비롯해서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미 군정 아래에서 취할 수 있는, 양측이 보안을 철저하게 하면서 둘이서만 빨리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진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패널3 : 김희곤 관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영국이랑 같이 인도 버마 작전도 하고 또 미국이랑 같이 국내 진공 작전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측에서도 우리 임시정부나 광복군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었을 것이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백범일지를 읽어보면 광복을 맞이한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환국 준비를 다 하셨는데 환국하려고 했을 때 미 군정 측에서 임시정부 자격으로 볼 수 없다, 개인 자격으로 와라,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활동을 같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미국만의 독단적인 조치인지 아니면 연합국 측에서 우리 임시정부를 그렇게 인식했는지. 우리 임시정부에 대한 시각이나 인식이 어떠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자 김희곤 : 전쟁이 끝나면 동아시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사실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은 당시에 최고를 자랑하던 프린스 오브 웨일스라고 하는 최신 전함을 말레이 해협에서 격침당하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일본군한테 당한 그 순간에도 전쟁이 끝나면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심의 판도를 그린다는 말이죠. 우리로 봐서는 속이 무너질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나라마다 동아시아의 전후 판도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정부는 장개석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 그런데 전후에 장개석이 한국을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계속 그런 의심을 갖지요.

예를 들자면 1942년 6월 미드웨이해전이 있고 나면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바로 전 1942년 3월 무렵에 장개석은 꿈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임시정부를 승인하자”. 그래서 4월 “임시정부 승인하자”고 미국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루스벨트는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찬반이 막 엇갈려요. 그래서 5월에 장개석의 주문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 그리고 결국은 미드웨이해

전이 일어나던 그 시기쯤 가면 신탁통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임시정부 승인 못 하겠다. 1943년 연초에 결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OSS하고 뭐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신탁통치를 하겠다고 방향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임시정부를 정부 자격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영국은 미국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가혹해요. 왜냐하면 전후 질서를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버텨줘야 러시아도 견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야 할 일본에 대하여 훨씬 더 우리보다는 우위에 놓는 방향을 갖고 있단 말이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들의 국익, 그러니까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영국은 한국 문제를 식민지 문제로 생각해서 결국 전후에 임시정부가 정부 자격을 갖고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은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에 서명한 나라의 대열에는 못 끼어들게 만든 것도 결국 영국의 입김이 가장 큰데 말이죠.[19]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8월에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늦게 들어왔어. 그사이에 들어오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은 미군정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오는 조건이 뭐냐 하면 개인 자격이죠. 결국은 하는 수 없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서명하고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널4 : 강좌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배경한 교수님. 장개석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엇갈리는 이유와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통으로 드리

19)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48개 연합국과 일본 간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 발효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강화조약으로 '대일강화조약'이라고 부른다.

고 싶은 질문인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궁금했던 부분인데 지금 정권에서 한미일 공조로 안보를 강화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일 감정에 대한 부분과 또 안보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쟁화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강연자 배경한 : 예. 감사합니다. 장개석 평가가 엇갈린다는 말을 하면서 한국에서 평가는 빠뜨렸네요.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중국에서 평가가 엇갈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륙에서는 공산당 국민당이 싸웠던 적대 세력이었고요. 그러면서 공산당을 탄압한 원흉으로 장개석을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일전쟁의 영웅이고 또 중공 정권의 전 단계 정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고 이런 것은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엇갈린다는 거예요.

대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이 있는 반면에 또 과가 있어서 엇갈리는데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장개석 혹은 현재 한국과 대만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장개석에 대한 평가는 현재까지는 장개석을 독립운동을 도운, 보훈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공을 내세울 때 제일 대표적인 중국인이 장개석이거든요.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장개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국민당 정부가 대한민국 독립운동 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왔는데, 뒷면에 가려져 있는 의도는 뭔가라는 거죠. 저는 그런 쪽에 연구들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얘기가 장황하게 길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원, 통제, 동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중국 정부의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의 내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 재정적으로든 인력적으로든 정치적으

로든 여러 가지 면에서 임시정부를 도왔습니다. 임시정부의 운영이 만약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복군을 비롯해서 이런 활동들도 모두 다 중국의 재정적 지원에 근거를 두고 진행이 됐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을 왜 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차적으로 걸리는 문제는 지원해주되 통제한다. 말하자면 중국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광복군에 대한 9개 준승이라고[20] 하는 9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휘 아래 또는 심지어는 한반도가 해방이 되는 상황에서 광복군이 한반도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중국군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광복군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얼마나 강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그런 통제를 왜 하려고 했느냐.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은 중국의 항일전 내지는 전투가 되면 중국의 동아시아에서 주도권 확보 주도권 회복 이런 것에 임시정부를 쓰겠다. 동원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광복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중국군 중심의 항일전쟁의 한 요인으로 한 요소로 보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복군 출신들이 동원됐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김원봉을 지원했던 게 조선 청년 간부학교였거든요.[21] 거기서 많은 군관이

20) 중국군사위원회는 1941년 11월 광복군에 「한국광복군 행동 9개 준승」을 요구했다. 제1항 한국광복군은 아국(중국)의 항일 작전 기간에는 본회에 직예하고, 참모총장이 장악 운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1) 조선 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를 이르는 것으로, 의열단 단장인 김원봉이 1932 중국 난징에 설립한 독립운동 간부양성학교다. 1935년 3년 동안 총 1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고 한다.

배출됐죠. 또 하나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낙양군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이라는[22] 게 있었는데 거기서 양성된 군관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동북으로 배치가 됐어요. 동북이란 만주지역입니다. 만주는 이미 9·18 사변 이후에 일본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중국군들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지하군대, 의용군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의용군을 돕는 조선 군사혁명 활동을 요구했고 그래서 많은 수가 동북으로 갑니다.

지원하되 통제하고 그리고 목표는 동원이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중국의 국익이 먼저였고 더구나 전쟁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중국 수도에 광복군 같은 독자성을 가진 외국 군대를 둔다는 건 중국도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회자 : 9개 준승 말씀하시면서 1944년 9월까지 이런 것들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우리 군대가 중국 땅에서 역할을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중국군에 예속된 상태라는 거죠. 예속이라는 것이 배속도 아니고 작전 통제도 아니고, 예속이라면 영구히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형태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임시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런 상태냐. 자주성이라든가 국군의 독립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충 설명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강연자 배경한 : 당시에 9개 준승을 둘러싸고 임시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구 같은 경우는 이걸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전쟁에 참여하다 보면 이것이 극복될 수 있

22) 뤄양(洛陽)군관학교는 1933년 중국 허난성(河南省)에 설립된 국민당 계열의 군관학교로 한국인 청년들을 학교 특별반에 입학을 허가하였다.

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의정원 안에서는 9개 준승을 둘러싸고 많은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이것을 빨리 개정을 하든지 폐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또 그런 상황들이 중국의 정보기관들 자료를 읽어보면 장개석에게 즉시즉시 보고됩니다. 임시의정원에서 이런 논란이 있다, 그래서 9개 준승을 폐기해야 한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대처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9개 준승을 폐지해서 광복군의 독자성 확보하기 위해 장개석을 비롯한 국민정부 측에 여러 차례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가 유화되거나 연기되거나 계속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4년에 들어와서 태평양 전쟁의 그 승기가 보이게 된 거죠. 일본의 패망이라고 하는 게 앞에 보이게 되는 상황에서 전후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는 게 중요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정부의 판단이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임시정부의 이야기를 너무 무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9개 준승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폐지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임시정부의 환대를 사려고 하는 말하자면 임시정부가 호감을 사서 그걸 가지고 종전을 맞으려고 하는 중국의 판단이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임시정부가 또 하나 중요하게 내걸고 있는 게 뭔가 하면 1944년 무렵부터 임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에 손짓합니다. 충칭에 있는 미국대사관, 미국에 있는 이승만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세력을 통해서 워싱턴에 요구를 계속해 우리 도와달라,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직접 통화를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보 그런 자료들을 보면 임시정부 안에서 미국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주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무마하

면서 좋은 관계에서 종전을 맞아야 된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9개 준승이 결국은 폐지가 됩니다.

사회자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패널5 : 김 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기 전에 이미 영국에 가서 영일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롤모델로 영국을 많이 따랐습니다. 영국에 가서 박물관에 가보니까 복장이 이건 일본식 복장이 여기 와 있나, 군사 복장이요. 거의 같더라고요. 단추나 이런 문양만 다를 뿐이지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영일동맹을 맺었는데 영국 함대를 일본에서 포격했고, 영국을 또 우리는 지원해 줬고, 또 해방 후에 영국이 계속 일본을 두둔했는데, 영일동맹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자 김희곤 : 우리가 영국과 수교를 한 게 올해 140주년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영국에서 우리를 일본보다 위에 놓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학생들을 메이지유신 하자마자 유럽으로 미국으로 파견하고 문물을 받아들입니다. 법도, 의회도. 그런데 그런 것의 큰 틀에서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동아시아 세계 질서를 영국 중심으로 끌고 갈 때 동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분점처럼 역할을 맡겼고 그러한 역할이 요즘 와서는 미국이 일본에 맡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영국 가서 많은 도자기나 이런 걸 보셨을 텐데 이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일본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좀 환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정이나 영국의 가정을 여행하다 보면 조금 격을 갖춘 집에는

일본 상품, 일본 자기가 집집마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그런 거 애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더 심할 정도로. 그래서 영일동맹은 저도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널6 : 저는 장개석과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배경한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원자라고 불리는 장개석은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을 인정받은 공로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까지 추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장개석의 지원이 임시정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광복군 창설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중국 내에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이 중국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잠깐 해 주셨습니다. 물론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독립운동에서 우리 형편에 중국 정부 장개석의 지원이 가장 또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중국이 굉장히 거대한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미국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새로운 중국 주도의 그런 국제 정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개석이 당시 한국을 지원했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강연자 배경한 : 네 감사합니다. 앞서 중국의 시대라고 하는 얘기를 해보면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위주의 패권에 대해서 중국이 과연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나올 거냐, 세계적으로 혹은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거냐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다 겹쳐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시대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적인 패권을 가지는 시대가 올 건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체제라고 하는 게 중국이 주도하는 체제라기보다는 미·중 체제 내지는 미·중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이런 다국 체제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상당한 세계적 발언권을 가지게 되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건인데요.

중국은 전통시대부터 시작해서 근현대 이후 장개석을 포함해서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실리적입니다. 철저하게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외교적 전략을 써왔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념적인 잣대라든가 무슨 그런 관념적인 또 무슨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그런 국익 차원의 실리적 입장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정립하는 게 맞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중국의 덩치입니다. 우리가 그걸 자칫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한반도에 남북한, 한반도의 40배가 넘습니다. 이 영토가. 그다음에 인구가 지금 수준으로 따지더라도 30배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말하자면 40대 1, 30대 1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일차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데 중국을 여러 가지 면에서 낮춰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중국을 대단하게 보자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보자는 입장이거든요.

사회자 : 마지막으로 김희곤 관장님께서 정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자 김희곤 : 감사합니다. 역사학자의 역할이 뭘까 저는 늘 마음속에 평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의 배가 가라앉지 않고 어떤 풍파도 견뎌내면서 어떤 방향으로 쭉 나아가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배가 왼쪽으로 너무 기울고 어떨 때 보면 너무 오른쪽으로 기울고 그럴 때 그것을 난파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이 평형수일 텐데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평형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존립 문제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을 때는 그때 나라를 잃었다 하더라도 주권보다는 통치권을 잃었다고 국제법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다시 나라를 되찾아서 세우고 나라를 유지 시켜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에너지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갈 때 그 중간에 있던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것이 한국일 수 없고 또 그 주체가 한민족일 수도 없고 그랬을 때, 그 융희황제가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가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언이 이미 대동단결선언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주권 국가를 만들어야 하니 하고서 대한민국인데 다만 우리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임시정부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최초로 나라 잃은 상태에서 다시 세울 나라는 황제가 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시민이 주권을 가진 민이 주권을 가진 사회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지금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방향을 딱 잡고 나아가는 그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바탕에는 박은식이든 신규식이든 그 당시의 분들 보면 전부 역사를 써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체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

이 왜 역사를 썼는가, 그 자체가 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썼던 때나 또는 이상설 선생이 대동역사를 쓰거나 또 유인식 선생이 대동사를 썼던 쓰거나 그 심정으로 배경한 선생님도 저도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좌우가 기울고 할 때도 평형수의 기능을 다 해보자. 이것이 제가 역사를 전공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회자 :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03

잊혀진 연해주 항일운동의 기록들

박 환

약력

현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전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

저서

『한국독립운동사의 반성과 과제』(국학자료원, 2023)

『러시아한인 독립전쟁』(선인, 2022)

『러시아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민속원, 2013)

강연 03

잊혀진 연해주 항일운동의 기록들

박 환

오늘 제가 할 대주제는 항일투쟁과 동북아시아라는 주제고 이 주제 속에서 저는 러시아 쪽. 저는 박사학위 논문은 만주로 받았고요. 만주로 하다 보니까 러시아를 모르고는 만주 이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만주 독립군들이 러시아 쪽으로 이동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만주지역의 독립운동가를 연구하려고 하다 보면 북한 지역하고 또 연계가 많이 되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또 만주에 독립군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러시아 쪽을 하게 됐지만, 만주라든가 러시아나 중국 본토 또는 북한 지역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특별히 러시아 쪽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주제는 잊혀진 연해주 항일운동의 기록이라고 했는데 러시아 가운데 전체가 아니라 러시아 부분 가운데서도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우리와 접해있는 지역, 동해 바다와 인접해 있는 주라고 해서 연해주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도시는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지역입니다. 물론 러시아 전체를 다 할 수도 있지만,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박사학위 논문은 박사를 조금 일찍 받았습니다. 1990년에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상당히 흘렀죠. 만주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만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1990년에 러시아와 국교 수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중국과 우리가 국가수교를 했거든요.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땅.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지역에 마음대로 가볼 수가 있게 되고.

그때가 30대 초, 20대 30대 그런 시절이니까 아주 열정이 불타는 그러한 시대여서 남보다 먼저, 또 만주를 했으니까 만주를 잘하려면 러시아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1991년 12월에 붕괴가 되고 1992년 1월 5일 날 처음으로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92년에 국가 수교했는데 1988년 1989년? 그때 중국은 들어갔고요. 중국 갈 때 김포로 출발을 해서 홍콩으로 가가지고요 홍콩에서 중국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를 가서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자료들을 많이 발굴하고, 거기에 한글로 된 자료도 엄청 많더라고요. 문서보관소에. 특히 한글로 된 신문들. 그래서 그 수많은 자료를 새로운 자료들을 갖고 와서 신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최초로 러시아 쪽 책을 썼는데요. 러시아 한인 민족 운동사라는 책입니다.

1995년도에 발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서가요 공저까지 하면 한 50여 권 되고 단독 저서가 한 43권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서 저 한테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박사학위 논문보다도 이 『러시아 한인 민족운동사』 1995년 탐구당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저의 대표 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대상 1991년 11월에 구소련이 붕괴하고 1992년에 가서 새로운 자료를 다 입수해서. 그렇게 해서 쓴 책이 『러시아 한인 민족운동사』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러시아 한인 독립전쟁』이라는 책을 2022년 작년에 냈습니다.

제가 올 8월 말에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기념으로 그동안 책으로 엮지 못했던 연구성과로 책을 7권으로 정리해서 러시아 두 편, 만주 한편을 냈어요.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뭘 해야 되냐면요 답사를 많이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하다 보면 후손들도 만나고 독립운동 현장의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는 문서라든가 사진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는 연구서, 그다음에 또 한 권은 사진첩을 냈습니다. 답사를 다니면서 모은 거는 답사록을 내고. 그래서 제 러시아 쪽 연구는 크게 연구, 답사,

사진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사진첩은 『사진으로 보는 러시아 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

왜 사진첩을 냈냐면, 전시에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박물관이나 전시관 사진 밑에 설명이 잘못된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책자들의 사진 캡션 설명이 붙은 걸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좀 잘못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학계에 처음으로 뭐를 제창했나면은 사진 역사 분석학 사진도 하나하나 사진 연도라든가 촬영자라든가 또는 출처 이거를 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진 출처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적혀 있습니다. 인물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물 사진에 촬영 연도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몇 년도에 몇 살 때, 어떤 사건이라든가 독립운동과 연관되는가 제대로 안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역사 학계에 '사진역사분석학'이라는 걸 처음으로 제창을 했고 각 사진첩을 한 5권 정도 냈습니다. 제 전공하는 쪽에 만주 러시아 중앙아시아 한인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사진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분석을 거기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러시아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은 외교부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의 주요 도서관에 배포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어판이 별도로 있고 러시아의 레닌 도서관이라든가 주요 도서관 미국의 주요 도서관이라든가 전 세계 주요 도서관에 외교부 채널로 배포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사록을 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쪽을 주로 하지만, 러시아 전역 또는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답사록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구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도 보고 또 사진, 그걸 답사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역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료만 갖고 보는데 자료만 갖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답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지도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지도를. 그래서 특히 이제 군사사에 있어서는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도가 중요하고 지형 지세가 중요하죠. 그리고 기후가 중요하죠. 사실은 전쟁이라든가 이 독립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여기 블라디보스톡하고 하바롭스크가 있잖아요. 모스크바가 있고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래서 블라디에서 모스크바까지 9,288km, 시베리아철도 6박 7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이 중 일부 철도는 조선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조선인이 러시아로 이동한 것은 1860년 정도 되는데요. 1870년대에 블라디보스톡 역이랑 블라디보스톡 항구가 만들어집니다. 노동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러시아 군인들이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경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군인들의 이동도 불가피하고 그러니까 러시아 죄수들 그다음에는 중국인, 조선인 노동자들이 주로 동원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츠크까지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대체로 철도공사에 동원이 된다. 이르쿠츠크까지만 조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서 철도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사금이 많이 난대요. 그리고 거기 목재가 많고 시베리아가 춥거든요. 철도공사를 안 해도 사금으로 떼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르쿠츠크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게 되고 그러니까 노동자가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이 예전에 독립운동 자금도 많이 냈고 아울러서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 그 장소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해주 지도

이르쿠츠크 약간 못 미쳐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춘원 이광수가 유정과 무정의 작품을 구성하고, 또 대한인 정교부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치타라는 도시입니다. 치타가 감자가 많이 생산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한글학자 주시경의 제자인 이국로가 주로 머물면서 활동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타라는 도시는요,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서울이잖아요. 여기 용산역이죠.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평양으로 해서 압록강 딱 건너가면 신의주잖아요. 신의주고 바로 중국의 단둥 옛날에 안동이라 그랬어요. 창춘이고, 하얼빈이고. 하얼빈에서 올라가면 만저우리에서 러시아 땅으로 탁 넘어가면 기차 정착역이 치타.

그래서 옛날에 조선 사람들이 치타로 많이 가고 특히 평양에서 기차 타면 바로 치타로 가기 때문에 평안도 세력이에요. 도산 안창호가 평안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활동한 평안도 사람들은 대체로 도산 안창호 세력. 그 중심지는 치타예요. 보통 블라디보스톡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블라디보스톡은 주로 함경도 사람이 두만강 넘어서 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지역은 이쪽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 역

블라디보스톡 역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그러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

바로 블라디보스톡 역입니다. 187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블라디보스톡 역 바로 옆에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에 붙어있어요. 역하고 블라디보스톡 역. 역 주변에 한국 민박이 많습니다. 한 1km 떨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현대호텔이었는데 지금은 롯데호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5성급 호텔도 있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은 지금도 전쟁 중이지만 한국하고는 아직까지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배가 블라디보스톡 항으로 갑니다. 근데 배가 자주 있지 않으니까 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연길로 가서 연길에서 버스 타고 블라디보스톡 들어갑니다.

블라디보스톡 역은요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기도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서 바로 하얼빈으로 간 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역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하바롭스크로 가고요. 왼쪽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하얼빈으로 갑니다. 하얼빈으로 해서 쭉 가면 치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헤이그 밀사[23] 그분들도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블라디보스톡 역은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하고도 관련이 깊지만,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준 열사 이런 분들이 출발한 역으로도 굉장히 명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러시아는 많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의 이동 수단은 모든 게 철도입니다. 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은 철

23) 헤이그 특사 사건은 1907년 고종이 이준 등에게 친서와 신임장을 주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활동이다. 1905년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한 을사조약의 강제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만국평화회의 의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상황이므로 회의참석과 발언권을 거부당했다.

도역 근처입니다. 그리고 철도역 근처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또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모두 한인 독립운동의 거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겨울에 춥고 아울러서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때 철도 아니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버스로 이동이 안 됩니다. 눈이 막 이렇게 쌓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를 이야기할 때 철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그리고 물론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가서 모스크바에서 바로 키예프, 키이우,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또는 프랑스 파리로도 가서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1912년 정도에 도산 안창호가 칭다오(청도 青島)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와서 모스크바로 해서 파리로 해서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을 이야기할 때 이 철도라는 것이 그리고 철도는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에 위치한 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언제 러시아로 이동했는가. 1860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60년 이전에 만주하고 러시아 땅은 극동지역은 바로 우리 고조선의 땅이었고 고구려의 땅이었고 발해인 땅이었습니다. 근데 발해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거란한테 망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청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 때 1860년 러시아는 끊임없는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오잖아요. 러시아는 북쪽에 북극해가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옆에 발틱해가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흑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항구가 없는 거예요.

이 동쪽으로 끊임없이 우랄산맥을 넘어서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블라디보스톡까지 오는 거예요. 청나라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1860년에 북경에서 청나라와 러시

아가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북경조약입니다.[24] 그러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우리가 두만강 너머의 러시아 연해주라고 하는 이 땅이 러시아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1860년이에요. 러시아 땅이 된 다음에 한국인이 최초로 이주한 것이 1864년입니다. 왜 이주하냐면은 함경도 평안도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먹고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군인들은 뭐냐면 자기네가 또 훈련도 하고 경비도 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넘어오는데 말을 잘 듣거든. 그러니까 너희 가족도 데리고 와, 일가친척들 데리고 와, 그러면서 다 세금을 면제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거 조선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1937년 강제이주 당할 무렵에는 약 20만 명의 조선인이 이쪽에 살게 되는 겨죠.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내년이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바로 고려인들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한국인들이 조선 사람들이 러시아로 일주한 지 160주년 기념이 되는 해다. 그래서 내년에 고려인과 관련된 여러 행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7년에 중앙아시아로 이주됩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9월부터 12월 사이에.

특히 조선 사람들 가운데 농사짓는 사람들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강제이주를 많이 당하고요. 왜냐면 그쪽에 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이거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주로 카자흐스탄 쪽으로 많이. 주요 인사들 신문사라든가 주요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터뷰한다든가 등등 이런 거 하려면 카자흐스탄

24) 북경조약은 1860년 베이징에서 청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이다. 제2차 아편전쟁 이후 청이 강화조약 비준 교환을 거부하자 1858년 영국과 프랑스군이 북경에 침입하였다. 그 결과 북경조약이 비준되고 러시아는 알선한 대가로 연해주를 할양받았다.

으로 가요. 우즈베키스탄은 거의 없어요. 약간 있어요. 거의 다 카자흐스탄에 있다. 그러니까 정치 지향적인 인물들은 대부분 카자흐스탄, 농사짓는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어업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아랄해 쪽으로 그런데 아랄해가 말라버렸어요. 등등 이런 식으로 보낸 거죠.

두만강 하구

두만강입니다. 여기가 김일성 초소입니다. 그리고 두만강 철교고요. 여기가 선봉 지대입니다. 북쪽에서 가장 개방 지역이면서 국경 지역이 낮은 선봉 지대입니다. 군사 쪽에서 이야기하면 나진항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진항은 수심이 깊고 1부두, 2부두, 3부두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부두 하나 사용하고 있고 부두 하나는 러시아, 하나는 중국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동쪽에 항구가 없는 거예요. 중국 땅의 마지막 지역이 훈춘이거든요. 훈춘 쪽에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없어요. 러시아도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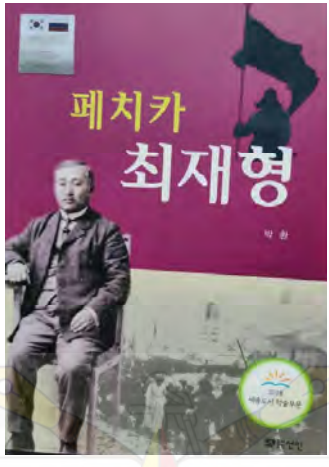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부동항이라고 그러잖아요. 겨울에 깡깡깡 업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딱 들어갈 때 좌우측으로 얼음 깨는 쇄빙선들 있죠? 그게 쫙 도열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끊임없이 북한하고 연결해서 얼지 않는 항구를 빌리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철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표준계잖아요. 러시아는 광계죠. 국방상의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기차를 타면 항상 초대소에서 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김일성 초대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휴게소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러시아지역은 하산입니다. 여기는 중국이고요. 중국 훈춘(琿春)의 팡촨(防川)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1930년대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장고봉사건이라고 해서 대단한 군사적인 측면에서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25]

지신허 기념비석

25) 장고봉사건은 1938년 7월 29일 ~ 8월 11일 소련과 만주의 동부 국경인 두만강 근처 장고봉(할힌골)에서 일어난 일본군과 소련군의 전투로, 일본군이 패한 사건이다.

한인들이 최초로 이주한 지역 바로 지신허. 땅 지(地)자 새 신(新)자 터 허(墟)자 새로운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석은 이주 140주년을 기념해서 서태지가 헌정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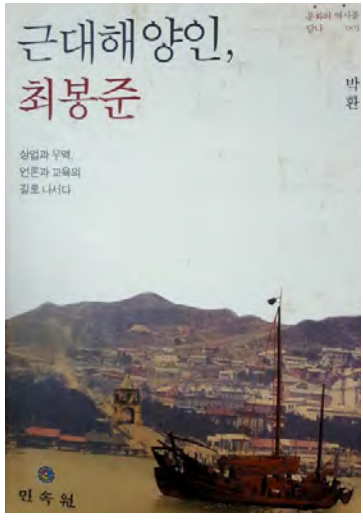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하신 분은 최재형, 최봉준, 안중근, 홍범도, 황기환, 강우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재형이라는 인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입니다. 러시아에서 제일 부자. 근데 노비 출신이었어요. 9살 때 러시아 땅으로 도망한 노비의 아들이고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러시아로 넘어가서 최초의 러시아 학교 입학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반들은 자재들을 서양 도깨비 학교에 절대 애들 안 보낸다. 그러니 노비의 자식인 네가 가라, 등록 월사금을 대줄 테니까. 그래서 최초로 러시아인 학교 입학생이 됩니다.

러시아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또 그 주변에 동해 바닷가니까 러시아 상선을 타고 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활 러시아어를 많이 배웠어요. 러시아 주요 항구 또는 멀리 있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됨에 따라서 굉장히 일찍 어떻게 보면 견문도

넓히고 공부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라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이 최초로 러시아지역에 공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1890년대 Park, 공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젊은 어린아이들에게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라든가 주요 도시에 유학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할 때는 돈도 대주고.

이분이 돈을 많이 번 계기는 러일전쟁 전쟁특수, 러시아 병사 지어주고 러시아 군대의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픽업을 제공해주고, 이걸로 해서 연해주에서 최고 부자로 등극한 분이 바로 최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과 러시아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 전혀 주목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러시아 갔더니 사람들이 페치카 최재형이라고 하는게 아닙니까. 군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난로.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최재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젊은 시절에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논문 쓴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재형의 자녀들이 모스크바에도 살고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도 살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찾아갔었습니다. 한국이랑 국교가 없던 시절에 갔었어요. 초창기에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베리아 항일운동의 대부고,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이었습니다. 올해 8월 14일 부인 최엘레나 페트로브나(1880~1952) 묘소가 키르기스스탄에 있는데 함께 한국으로 모셔왔어요.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으로.



다음으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봉준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분은 제2의 장보고예요. 근데 아무도 최봉준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책 썼어요. 최재형과 최봉준은 의형제예요. 1살 차이예요. 의형제인데 최봉준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또 제일 부자예요. 한마디로 선박왕이고, 해상 교류의 왕자라고 할까요. 아주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냐면 준창호라는 배를 운영하는데 이 배에다가 여객과 무역을 해요. 한국, 일본 중국 상하이 쪽 하고 해상무역을 하는데, 특히 원산이랑 성진.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다 보니 러시아 군인들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전쟁할 때도, 그래서 살아있는 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3대 소시장이 함경도 길주와 명천, 남쪽은 수원이에요. 그래서 길주, 명천지역의 소들을 원산이나 성진으로 운반해서 러시아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거죠. 이 사람이 애국심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준창호에 태극기 휘날리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때의 태극기 휘날리는 걸 보면서 그 감동을 적은 것들이 『해조신문(海朝新聞)』에 나와요.

『해조신문』은 1908년에 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최초의 한글 신문이에요. 또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발간한 신문으로 『고려일보』가 있거든요. 고려일보는 1923년에 블라디보스톡에 『선봉』으로 창간돼서, 『레닌 기치』가 됐다가 1991년 12월 이후에 고려일보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나와요. 고려일보가 지금 창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어요. 1923년에 『선봉』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908년에 『해조신문』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민족주의 계통이고 『선봉』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섞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최봉진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한글 신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기사들이 별별 게 다 나와요. 또 100% 한글이고. 이 해조신문이 그러니까 이게 왜 해조신문이냐면은 해삼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발행한 신문, 해삼(海蔘)이 바로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선인이 간행한 최초의 신문입니다. 해조신문. 해삼에 살고 있는 조선인.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에 해삼이 많이 나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에 쌓여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근대 해양인 최봉준』이라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러시아지역 한인 언론과 민족운동』이라는 책도 냈는데 이거 왜 냈느냐면은 1908년에 해주신문이 최초로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2008년이 러시아지역에서 한인들이 한글 신문을 간행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잖아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지역 한인 언론과 민족운동』이라고 해서 해조신문 창간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 스스로 자축해서 『러시아지역 한인 언론과 민족운동』을 내고 1908년부터 저기에 선봉, 레닌 기치, 고려일보까지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고려인들하고 많이 하는데, 선봉을 100주년 해서 고려일보를 기념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고려인들이 간행했던 이 『해조신문』이라는 신문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고려인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이주했던 우리 고려인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인정 안 하는 거면 나는 너희 인정 안 하겠다. 사회주의 계통만 인정하고 민족주의는 인정 안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정체성과 관련해서.

연해주에 있는 단지동맹 기념비

그리고 러시아 연예계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안중근 의사고 그래서 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의거하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러시아에서 활동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활동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단지(斷指), 손가락도 잘랐거든요. 러시아 하산 쪽에서. 그래서 단지동맹 기념비도 있구요.

블라디보스톡의 현재 모습

블라디보스톡의 옛 모습

블라디보스톡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려인이 살던 고려인 거리 블라디보스톡 바로 바닷가 쪽이고요. 그래서 해조신문에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안응칠이라는 이름으로 신문에 투고도 했던 글도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또 러시아 연해주에서도 활동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평양 출생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특히 함경도 지역에서 의병 활동을 했죠. 그다음에 두만강 건너서 러시아 연해주에 넘어와서 최재형, 안중근과 더불어 홍범도 장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1937년에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강제이주를 당했고 거기서 여생을 보내셨죠. 물론 1920년 6월 봉오동전투로 대표되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묘소를 찾아서 1992년인가 1993년에 알마티에서 차를 빌려서 밤새도록 차를 달려서 홍범도 장군의 묘소에 가서 소주 한 잔 올리고 참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와 관련된 인물 황기환이라는 인물,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거기에 유진 초이로 나오는 한국 배우. 이병헌이죠. 이병헌 역할의 모델이 된 인물이 황기환입니다. 황기환은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거기서 청년 생활을 보내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해서 약간 천대도 받고 그러다 미군으로 참전을 해서 유럽 전선에서 싸웠어요. 그러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김기식을 비롯해 파리 위원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간 거야.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위에 북극해가 러시아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항구가 무르만스크예요. 거기 가서 조선 사람들

이 많은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붕 떠버린 거예요. 황기환이 무르만스크로 가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교섭을 해서 이 사람들을 파리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조선으로 귀국시켜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올해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잖아요. 이때 유해를 국내로 모셔왔어요.

연해주 3·1운동 사진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우리가 그동안 좀 잊고 있었던 것은 3·1운동입니다. 3·1운동에 러시아에서도 우리 한인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파고다공원 그렇죠. 거기서 3·1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만주, 러시아, 중국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3·1운동이 있었어요. 멀리 멕시코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도 블라디보스톡, 이르쿠츠크 등지에서도 3·1운동이 있었죠.

3·1운동 1주년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때 많은 사람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여성인데 바로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전신인 대한적십자회 러시아 지부장 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지역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이 백암 박은식입니다. 임시정부 교통 총장을 했던 문창범은 대한국민의회 의장으로서 러시아 측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대한적십자. 여러분 적십자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1919년 8월 29일 임시정부 산하에 대한적십자가 만들어집니다. 대한적십자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만주라든가 여러 지역에 지사를 뒀습니다. 그리고 간호원을 양성했어요. 인도주의 활동 또 독립군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전쟁에서 대한적십자의 활동이 이때까지 주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적십자와 간호원들 관련된 사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대한적십자』라는 책도 제가 썼고요. 책 표지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간호사들이고요, 여운형도 있습니다. 그 옆에 안중근 의사 동생 안정근. 안정근이 특히 대한적십자 부회장으로서 간호활동을 했고요. 인도주의 활동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폭탄을 던진 강우규 의사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특별히 군사 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에 대한 것입니다. 『독립군과 무기』라는 책을 처음 썼습니다. 만주하고 러시아 쪽에 우리가 자꾸 청산리 봉오동전투,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독립전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무기 가운데는 예컨대 이 당시에는 맥심 기관총이라든가 또는 모젤 권총이라든가 또는 소총들. 그 당시에 모신나강 소총이라든가 등등 이런 총기류에 대한 거.

근데 역사 속에서는 총기 자체보다도 총기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얽힌 수많은 콘텐츠가 있거든요. 스토리텔링. 근데 자꾸 체코 군대가 또 이렇게 값싸게 독립군에게 팔아넘긴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내에 있는 수많은 동포가 돈을 내서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봉오동전투로 우리가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김좌진, 홍범도 장군 두 사람의 무슨 전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탁월한 지도력도 있지만, 국내 모든 동포의 성금을 모아 만든 군자금 제공이죠. 그로 인한 무기 구입. 지도자의 지도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서 국민이 모두 함께 거둔 승리가 아닌가. 그래서 『독립군과 무기』라는 제목을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주제로 논문이나 책은 제가 처음 썼습니다. 책도 이것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정 보완할 게 너무 많아요. 개척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임시정부기념관 쪽에서도 처음에는요 거기 전시할 때 일본군 무기만 갖다 놨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무기 구입에도 박물관들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솔직히 문해안이에요. 저희가 사관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1918년부터 22년까지 시베리아 출병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군대들이 있잖아요. 군대들의 군복이라든가, 의외로 사진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립군과 무기'라든가 '독립군과 전략 전술' 그다음에 '독립군과 군자금' 이런 테마들,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의 당시 군복 복

장, 독립군들의 모습. 이렇게 굵직굵직한 테마들을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1920년 4월 일본군이 조선인을 학살한 간도참변 현장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1920년 4월 독립군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일본이 대대적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도 이때 학살이 됐다고 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토크콘서트

사회자 김유석(전쟁기념관)

박 환,

패널

사회자 : 오늘은 교수님이 쓰신 책 내용만 공개해도 시간이 될 정도의 많은 저서를 쓰셨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강연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이론보다는 현장을 가서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누가 반박을 할 수 있겠고 또 거기에 어떤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은 주로 연해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항일 독립운동이 어떻게 그쪽에서 왕성하게 되었는지 또는 그런 것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연자 :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이 갖는 특징과 특색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905년에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있게 되는데, 외교권을 빼앗기면 사실상 나라를 빼앗기게 되니까 많은 분이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도모해 봐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찍 이주한 지역이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 그다음에 미주 지역. 만주와 러시아는 1860년대 초에 이주를 했고, 미주 하와이는 1902년 정도, 그리고 멕시코는 1905년 전후 이주를 했거든요.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을 또 굉장히 국경이라고 해요. 예전에 저는 3·8선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주랑 러시아 다녀보면서 압록강 두만강은 그냥 하류는 좀 큰 강이지만 상류로 가면, 북한의 만포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도 안 돼요. 거리가. 또 두만강 지역도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주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만주 러시

아는 기본적으로 동포들이 있고 또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다 보니까 독립군을 양성해서 국내로 쳐들어올 수 있는 지리적인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나 만주는 항일무장투쟁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미주라든가 중국의 상하이는 거리가 멀거나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동포가 얼마 안 사니까 대체로 외교적인 어떤 투쟁운동. 독립운동은 지역마다 자기네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추구했던 것 같다.

전체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봤을 때 러시아 연해주는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1910년대 국내외를 통틀어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국가 수교하기 전에는 가볼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연구가 제대로 안 됐고, 러시아 해독 능력도 부족하고.

사회자 :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제한 요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으로부터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 또 우리 동포들이 그나마 많이 있는 곳,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돈이지 않습니까? 돈의 지원이 되는 곳. 이런 것 쪽에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청강을 해 주셨던 분 중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1 : 저는 수의사 김준영이라고 하는데요. 돼지 덕분에 연해주에 몇 번을 갔었거든요. 러시아 연해주도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잘 생산이 안 돼서. 질문은 그겁니다. 우수리스크라는 도시를 갔더니 우수리스크 러시아 역사관 같은 거죠.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한글로 돼 있고, 1920년대 일본이 침략했을 때 그걸 막았던 사람들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 이름이 다 한글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 궁금합니다.

강연자 :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우수리스크라는 데가 있고요. 우수리스크는 기차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하바롭스크로도 가고 또 하얼빈으로도 가는 우리나라의 대전과 같은 곳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주로 산악지대이고 해안가인데, 우수리스크는 광활한 벌판입니다. 우수리스크에 고려인 문화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박물관처럼 돼 있는데 예전 동북아평화연대에서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인명들은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한인들을 전체적으로 명단과 사진이 있는 거 붙여놓은 겁니다. 그냥 한국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러시아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러시아 성은 한국 성인데 이름은 러시아말로 된 사람들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최근에 많은 독립운동가 사진들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 쪽에서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사망했던 수많은 그러한 우리 독립운동가 가운데 희생된 그런 분들 사진하고 같이 pdf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전시관을 리모델링하면 더 많은 분이 거기에 실릴 것 같습니다.

패널2 :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분들이 우리에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테러라고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의열 투쟁과 테러는 이해 당사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911테러 이후에 의열 투쟁과 테러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의열 투쟁과 테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독립운동 역사에서 의열 투쟁의 특성이나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연자 : 독립운동의 여러 가지 방법론 중의 하나가 의열 투쟁이 있는데요. 의열 투쟁은 의열이라는 표현이 투쟁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현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학계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폭력 투쟁 그러니까 풀어서 한다면 의열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방법론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로 우리 독립군이라든가 독립운동 세력이 적은 지역, 예컨대 상하이에서 의열단이라든가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이라든가. 그럴 때는 무장투쟁이라든가 이 독립군 부대를 이끌 수 없으니까 대체로 그런 데서 주로 의열투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열하고 테러. 그 부분은 사실은 간단한 부분은 아닌데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의열을 넘어선 부분은 상대방도 테러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의열투쟁이라든가 또 평화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투쟁했던 그 메시지가 단순한 독립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과 또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간단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패널3 : 1860년 국경조약으로 연해주가 러시아로 완전히 귀속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920년 4월에 연해주에서 많은 한인이 죽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최재형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강연자 :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918년부터 1922년까지 러시아가 전쟁이거든요. 당시에 러시아 황제가 니콜라이 2세인데 거기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들이 시베리아에 출병을 하죠. 그때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거든요.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러시아 군대와 일본군은 같은 편이고 그다음에 볼셰비키하고 우리 독립군이 같은 편이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 독립군을 적으로 사살할 수 있

는, 볼셰비키하고 같은 편이니까. 우리는 볼셰비키와 같은 편이고. 그래서 그런 특수 상황 우리가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 30년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 선정심사를 했거든요. 순수하게 공산주의운동만 한 사람은 독립유공자로 선정하지 않고 민족주의운동을 하다가 공산주의운동을 한 사람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공산주의운동을 했다 하여 독립유공자로 선정했거든요. 그거는 상황 특성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패널4 : 연해주에서 무장이나 독립운동이 활발했다고 하셨습니다. 연해주가 과연 어떤 지리적, 역사적인 특성을 지녔기에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강연자 :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연해주라고 하는 것은 현재 행정구역으로 프리모르스키 크라이라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톡, 그러니까 두만강 건너부터 하바롭스크 이전. 거기를 보통은 연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바롭스크는 변두리에 있는 땅이란 뜻인데, 별도의 행정구역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두만강을 넘어가긴 했는데. 고대사 쪽에 연구하신 분들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일단은 발해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블라디보스톡 향토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발해 유물들이 많고 또 러시아 연방대학 박물관에도 많고. 그래서 발해 쪽의 유물과 자료들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일부 고구려 유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인데요. 고려학술문화재단에서 30년 전부터 계속 지금 현재도 1년에 최소 1만 달러 정도. 예전에는

몇십만 달러씩 설립자가 고암그룹 회장 장채욱 회장인데, 아버님이 러시아 쪽에서 독립운동하신 분의 자재분이에요. 그리고 발해를 연구하신 분인데,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가 과거에 우리의 영토였다는 그러한 인식. 그리고 그 유명한 일본강점기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백암 박은식, 단재 신채호,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산운 장도빈 이분들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많이 연구했고, 그래서 많은 동포가 거기에 살면서도 옛날에 여기가 우리의 영토였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많이 이주했고, 정착했고 또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패널5 : 러시아에 보면 러시아 극동 문서보관소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의 양, 내용,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공개되어 있는지 현황 같은 걸 좀 알고 싶습니다.

강연자 :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러시아 극동 문서보관소는 고려학술문화재단에서 지원을 1990년대부터 받아서 저하고 여러 사람이 자료를 계속해서 봤고요. 고려학술문화재단에서 한 20년 전에 전체 목록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600페이지짜리 목록지도 이미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거기 다 실려 있고요. 지금 자료 수집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진이나 지도가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제가 사실은 아까 최재형 책도 내고 했는데, 최재형이 직접 쓴 글이라든가 관련해서 러시아어로 자료가 많아요.

원래는 문서보관소가 톰스크에 있었잖아요. 톰스크에 있었거든요? 근데 톰스크 거를 돈이 없어서요. 1991년 12월 구소련이 붕괴해서 돈이 없

어서 블라디보스톡 역 화물차에 아직도 실려 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다 오픈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MOU 체결해서 돈을 대준다고 해서 고암그룹이 그쪽에 돈을 엄청 대가지고 그쪽 자료를 저희가 자유롭게 보고 돼 있는데 한국 자료는. 그리고 러시아 자료도. 그리고 이제 자유시는 거기 문서보관소가 있을 것이고. 치타 있거든요, 치타 문서보관소.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게 그런 자료들을 조금 더 이렇게 수집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리고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자꾸 모스크바 쪽 자료를 보는데. 그런데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제정러시아의 수도가 상트잖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문서보관소에 있고 거기는 박벨라가 옛날에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는 모스크바에는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굵직굵직한 사건 있죠. 극동에서. 그거는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다 올라가요. 근데 아주 세세한 자료 있죠, 블라디보스톡에는 잔잔한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거 보다도 더 디테일한 것은 사실은 극동 문서보관소에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 열차에 그렇게 화물차에 실려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패널6 :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만주 지금의 중국 동북에 가보니까 묘를 너무 엉터리로 해놨더라고요. 김좌진 기념사업회를 따라서 한번 갔었는데 후손이 있는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해놓고 백포 서일 총재 같은 분은 후손이 없다 보니까, 게다가 종교가 대종교라 그런지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 굉장히. 제가 한 15년 전에 가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한국 독립운동도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게 되는 게 종교나 이런 것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연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향이 워낙 크고요. 대종교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에 대종교가 축소되다 보니 실제 한 역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고. 그쪽에 나철, 김교헌, 서일 대종사 세 분의 묘소가 참 처음에 제가 1990년에 만주에 갔을 때 진짜 개 무덤처럼. 지금 아주 잘 돼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는 분위기고, 역사적인 균형감은 가져야 합니다. 학자는 학자로서 역사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전체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학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고 또 내야 하고, 연구 기관을 존대하고 학자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3 시민강좌

항일투쟁과
동북아시아

기획 및 편집 정형아, 김윤미

강연자 김희곤, 배경한, 박 환

사회자 김유석

본지에 실린 내용은 당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2023 시민강좌

항일투쟁과 동북아시아

발행일 2023년 12월 28일
발행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 쇄 국방출판지원단 M23110875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CITIZEN
LECTURE

비매품/무료
ISBN 979-11-5598-110-8